우리 딸들의 밝은 새천년을 연다

한국여성재단-팩스통신

[redacted]

수 신	박영숙 이사장님
발 신	한국여성재단 [redacted]
발 신 일	2006. 9. 3
제 목	우먼타임즈 원고 청탁 요청 건
내용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이현제 과장입니다. 말씀드릴 사항은 다름이 아니오라 우먼타임즈에서 원고 청탁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청탁글은 이번에 우먼타임즈에서 강원룡 목사님의 추모에 관해서 목사님과 연이 많으셨던 여성계 인사님들의 글을 게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마주제는 '강원룡 목사와 나'이며 글의 내용은 생전에 목사님과의 해왔던 일을 회고 하는 형식으로 써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분량은 원고지 10매정도며 A4로는 1장이 조금 넘는 분량입니다. 기간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주시면 감사 드리고 다소 늦더라도 이사장님의 글을 꼭 좀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1회에는 대한적십자사 이연숙부총재님, 2회에는 최순영의원님이 글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번 이사장님의 글은 3회가 된다고 합니다. 글과 관련해서 우먼 타임즈의 담당자는 감현주 차장입니다.
요청사항	이번주 수요일까지 [redacted] 원고지 10매(A4 1장 조금 넘는 분량)
총 매수	매수 : 총 1매(표지포함)

hyunje@hanmail.net

hyunje@hanmail.net